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한우자조금이 함께 합니다



**한우 소비
촉진 행사**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한우 수출
지원**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UAE 등



**한우 가격
안정**



**한우 가치
재규명 및
홍보**



**원료육
차액 지원**

급식·육가공품
제조 업체 수입육을
한우로 대체



**한우 암소
비육 지원**

선제적 암소 비육
도축 지원

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우자조금

2023년 8월호 Vol.214



한우자조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으면
더욱 편리하게 각종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

농가소득 높이는 암소 비육 요령

선도농가 탐방

“끊임없는 사양관리 연구, 고급육 지름길”

농장관리 체크포인트

가을철 **환절기 한우 사양관리 요령 ①**





표지이야기

정관호 연한우목장 대표는 끊임없는 배움과 사양관리 연구를 통해 한우사육 6년 만에 1++등급 출현율 67.3%, 1+이상 88.5%, 평균 도체중 400kg의 높은 미경산우 고급육 성적을 기록했다.



04 기획

농가소득 높이는 암소 비육 요령
최고급육 생산위한 암소 비육 이렇게 하자

08 선도농가 탐방

- ① “끊임없는 사양관리 연구, 고급육 지름길”
충북 충주 ‘연한우목장’
- ② “어릴 적 꿈 현실로 만들고 있어요”
전남 강진 ‘녹색목장’

14 한우자조금이 만난 사람

“한식 조리 노하우로
한우 홍보·소비촉진 기여할 것”
임성근 요리연구가

16 포커스

‘한우 소비활성화 및 가격안정
현장 소통 간담회’ 열고
장단기 한우산업 발전방안 모색

18 농장관리 체크포인트

가을철 환절기 한우 사양관리 요령 ①

19 방송에서 만난 한우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은 바로 ‘한우’

20 이달의 소식

- ① ‘2023년 학생대상 한우요리체험’ 성료
- ② KPGA와 함께하는 한우 육포 홍보 프로모션
- ③ 카카오와 협업 ‘한우, 일리 있는 선택’ 캠페인 전개
- ④ ‘휴가철 맞이 온라인 한우장터’ 성황리에 마쳐
- ⑤ ‘한우개량 극대화를 통한 전남한우산업 생존전략’ 심포지엄
- ⑥ 2023년 제1차 예산심의 소위원회

24 한우고기 유통동향

25 한우 수급시황

26 카드뉴스로 알아보는 우리 한우

27 독자마당

2023년 8월호 통권 제214호

발행일 2023년 8월 14일

발행인 이동환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서초동) 커피아회관 3층 교육조사부

전화 02-522-3607 팩스 02-522-3605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기사와 사진 등은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농가소득 높이는 암소 비육 요령



한우 사육두수가 사상 최대로 증가함에 따라 과잉된 사육두수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농가들은 수익성 악화의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우 사육두수 조절과 새로운 한우산업의 범위를 넓혀가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안은 가임암소의 감축이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 현장에서는 암소 비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암소는 거세우와 비육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사양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전문가 기고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암소 비육 사양관리 요령에 대해 살펴봤다.



장 선 식 농업연구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고급육 생산위한 암소 비육 이렇게 하자

■경산우 비육기술 - 10개월 비육해야 등급 높아

◆비육기간 설정

• 유전 및 번식 능력이 저하된 경산우 56두를 이용해 비육개시체중이 450kg 미만인 개체와 이상인 암소를 대상으로 기간을 6개월, 8개월, 10개월로 나눠 비육.

• 사료급여량은 비육후기 농후사료를 8kg내외로 제한 급여했으며 조사료는 벣짚을 4kg내외로 자유 급여.

• 450kg미만 체중의 시험축은 10개월 비육 시 1등급 이상 출현율이 75%로, 6개월 비육 14%, 8개월 비육 50%에 비해 상당히 높음.

• 보통 3산 48개월령이면 대다수 암소가 400kg 이상의 체중에 도달하는데 이런 소에 대한 비육기간은 최소 8개월, 가장 적절한 것은 10개월 비육해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음.

• 초음파 육질측정에 의한 근내지방도는 개시시에 1.7에서 출하시에는 4.57~4.71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두당 38만3,000원의 소득이 증가.

• 경산우의 육질이 가장 잘 나오는 시기는 2산 이후 4세 무렵에 비육을 개시하여 5세 무렵에 출하

하는 개체가 육질개선 능력이나 등급이 좋으며 노령우라는 이유로 적용되는 성숙도 과다에 의한 등급 하락도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음.

• 연령별 출하시기에 따른 성숙도 증가에 의한 등급 저하판정 비율은 5세가 20%, 6세 50%, 7세 이상이 90% 이상이므로 송아지의 능력이 좋다면 5산 이상 생산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3산 이전에 비육하는 것이 좋음.

■경제적인 측면서 암소 6세 이전 출하가 적당

◆경산우 연령별 발육 및 도체특성

• 경산우 연령별로 발육과 도체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경산우의 평균체중 455.0±75.4kg, 평균 나이는 6.0±1.8세인 개체를 대상으로 5세이하, 6~8세, 9세 이상으로 구분했으며 비육기간은 8개월 내외로 비육.

• 사료급여량은 비육후기 농후사료를 8kg내외로 제한급여 하였으며 조사료는 벣짚을 4kg내외로 자유 급여.

• 시험축의 평균연령은 각각 4.2세, 6.9세 및 9.0세, 평균 산차는 1.5~2.6산, 비육 개시체중은 5세

〈표 1〉 한우 성별 도축현황

항목	1999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21년	2022년
암소	506,994(58.0)	510,584(53.1)	413,195(46.7)	339,355(45.7)	358,818(45.1)	411,875(47.3)
수소	327,719	27,703	24,615	18,100	8,409(1.05)	6,403(0.7)
거세우	38,347	421,464	445,783	385,081	427,011(53.7)	451,229(51.9)
총계	873,060	959,751	883,593	742,536	742,238	869,147

〈표 2〉 한우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

항목	1999년	2002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암소	27.6	51.4	66.5	66.5	56.3	55.5	51.7	46.3	46.4
거세	52.6	48.5	70.4	70.4	79.0	77.8	78.3	81.6	84.7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암소	50.3	53.7	55.7	57.4	56.9	59.0	59.4	59.1	
거세	84.0	84.6	84.3	88.2	71.9	88.7	89.2	90.8	

〈표 3〉 연령별 발육 및 사료이용성

구분	연령			전체평균
	5세 이하	6~8세	9세 이상	
두수	21	30	3	54
평균연령	4.2±1.2	6.9±0.9	9.0±0.0	6.0±1.8
평균산차	1.5±0.5	2.6±1.0	2.3±0.6	2.3±1.0
개시체중(kg)	419.0±92.1	474.7±53.3	509.0±28.5	455.0±75.4
출하체중(kg)	615.7±92.2	646.7±49.9	633.0±34.6	633.9±69.6
일당증체량(kg)	1.14±0.31	1.04±0.30	0.83±0.19	1.07±0.30
건물섭취량(kg)	11.07±0.06	11.14±0.56	11.44±0.09	11.13±0.56
사료요구율(kg/증체 kg)	9.70	10.71	13.78	10.40

이하구가 419kg으로 450kg이하였으며, 나머지 구는 450kg이상.

• 출하체중은 각각 615kg, 646kg, 633kg으로 6~8세구가 오히려 9세 이상 구보다 높았고, 일당증체량은 나이가 어릴수록 컸으며 사료요구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많게 나와 사료효율 저조.

• 근내지방도는 5세 이하와 6~8세는 비육 시작 시 4.60이지만, 9세 이상은 4.3으로 오히려 낮게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근내지방도 침착능력이 떨어지고 등지방두께는 두꺼워 육량 C등급 출현 비율이 높았음.

• 성숙도 면에서 6~8세 이상 및 9세 이상이 각각 7.2, 8.3으로 성숙도 과다에 의해 육질등급 감소요인으로 작용.

• 육질등급은 1등급 이상이 각각 62%, 56%, 67%로 9세 이상이 높은 편이었으나 1+이상 출현율은 전

혀 없어 경락단가 면에서 떨어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육개시 체중은 증가했으나 성숙도를 고려하여 6세 이전에 출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7세 이후에는 성숙도에 기인한 등급하락요인이 생겨 경제적인 손실 감수.

◆초음파 육질측정기 이용한 출하시기 결정

• 암소비육 시 초음파 육질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암소비육은 원칙적으로 번식능력이나 유전적인 능력이 떨어진 개체를 비육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기준이 명확치 않고, 무작정 비육하다 보면 막상 출하했을 때 육질성적이 저조함

• 비육 4개월 경과 및 도축시점에 각각 초음파 육질 측정을 실시하면 어떤 개체를 어떻게 비육하여 출하하는데 적절한지 판단의 기준이 됨.

• 비육대상으로 선정되어 비육이 들어간 상태에

서 사육되는 암소는 비육개시 4개월 후에 초음파 육질 측정.

• 4개월 비육 후 근내지방도가 1, 2인 개체는 4개월 더 비육해도 2, 3이하이기 때문에 2, 3등급으로 판정받게 되므로 오히려 사료비 등을 계산하면 손해 보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빠르게 출하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

• 4개월 비육 시 근내지방도가 4이상인 개체는 모두가 1등급이상을 보여 비육개시 4개월에 초음파 육질측정이 매우 유리.

• 생체 근내지방도가 2인 개체는 비육개시 6개월 전후에 출하하여 일반적인 개체보다 1~2개월 추가로 비육하는 것이 적절.

• 근내지방도가 3이상인 것은 최소 2개월 이상 추가로 비육하는 것이 좋으며 등지방 두께가 얇을 경우 비육기간이 늘어날수록 도체등급은 향상.

• 4개월 비육 후 초음파 육질 진단 시 근내지방도가 1 또는 2가 나오는 비율은 유전적으로 개량이 잘된 축군의 경우 30~40%정도가 나오는데 개량이 덜 되었다면 50% 이상 나올 수도 있으므로 경제적인 암소비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초음파 육질 측정을 적극 이용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음.

■4개월 제한·4개월 자유채식 급여가 육질면서 우수

◆암소비육 위한 적정 배합사료 급여량 설정

• 6세전후의 번식능력 저하축의 생체중이 477kg 내외인 30두를 공시하여 배합사료 급여방법에 따른 육질 성적을 비교.

• 첫 번째 시험구는 농후사료를 8kg으로 제한해 8개월간 비육했고, 두 번째 시험구는 제한 4개월, 자유채식 4개월, 세 번째 시험구는 제한 6개월, 자유채식 2개월 및 벗짚 자유채식으로 급여.

• 제한 6개월+자유채식 2개월 비육한 세 번째 시

〈그림 1〉 한우 경산 암소의 비육개시 전·후 발육비교



험구가 육량등급과 사료효율 면에서 우수 했으나, 육질등급 면에서는 제한 4개월+자유채식 4개월간 비육한 두 번째 시험구가 우수.

■암소 비육방식에 따른 고려사항 - 이유 후 최소 6개월 비육

◆임신 중 암소비육

• 일반적인 농가 비육 시 암소가 임신한 상태에서 평소보다 급여량을 증량해 사료를 하루 5kg 정도로 급여하면서 분만 후 3개월 정도 포유기간을 거쳐 송아지를 이유한 후 바로 출하 하는 경우가 많음.

• 이 시기는 송아지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분만 후 젖을 분비하기 때문에 어미 소의 체구가 커지고 살찌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근내지방은 거의 축적되지 않으므로 이유 후 최소 6개월 이상 약 8kg의 사료를 꾸준히 섭취케 하여 충분히 비육시킨 후 출하.

• 임신 중 비육할 경우, 비육기간이 이유 후 8개월 비육하는 것보다 이른 시기에 출하할 수 있으나 사료비용은 50kg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됨. 이에 농가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

• 대다수의 농가가 성급한 출하로 인해 육질을 충분히 향상시키지 못하고 출하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향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적정량의 사료급여와 충분한 비육기간을 거쳐 육질등급을 향상시키면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음.



충북 충주 '연한우 목장'

“끊임없는 사양관리 연구, 고급육 지름길”

올해 52두 미경산우 출하...1⁺⁺ 출현율 67.3% 기록
암소가격 하락했지만 두당 월 8만원 이상 소득 창출

◀ 정관호 연한우목장 대표.

6년 만에 최고급육 생산농가로 우뚝

충북 충주시에서 165두의 미경산우를 사육하고 있는 정관호 연한우목장 대표는 지난 3월 26일 52두의 미경산우를 출하해 1⁺⁺등급 출현율 67.3%, 1+이상 88.5%, 평균 도체중 400kg을 기록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2017년 한우사육을 시작한 정관호 대표는 2019년 4월 20두의 미경산우를 첫 출하해 1+등급이상 출현율이 30%였으며, 2등급도 7두나 생산했으나 한우사육 6년 만에 이 같은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충주시청 조정팀 감독이었던 정 대표는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축산컨설팅을 하는 지인의 조언으로 암송아지 20두를 입식하며 한우산업에 첫발을 디디게 됐다.

그는 “한우사육을 시작했지만 막상 한우에 대한 제반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축산컨설팅을 하는 지인과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 컨설팅 직원으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사양관리 선도농가가 있

다면 무작정 찾아가 그들의 노하우에 대해 배웠다”면서 “또 네이버 밴드나 카페를 통해 공부하고, 이를 농장에 접목하여 나만의 사양관리 체계를 확립한 것이 지금의 고급육 성적 비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배합사료 아침·점심·저녁 3회 급여

한우사육에 있어 정 대표의 가장 큰 특징은 평균 단가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는 암송아지를 구입해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해 최고급육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사양관리 노하우를 살펴보면, 8개월령 암송아지를 입식한 후 비타민제와 호흡기 백신을 접종하고, 생후 11개월령까지 배합사료는 아침·점심·저녁 각각 1.2kg을, 조사료는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를 무제한 급여하고 있다.

정 대표는 “배합사료는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전구간 아침·점심·저녁 등 3회에 걸쳐 급여하고 있다”며 “조사료는 세절해 급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12개월령에서 16개월령은 하루 동안 4.5kg에서 개월령에 따라 최대 6kg까지, 17개월령부터 24개월령까지는 약 8kg정도를, 25개월령부터 출하할 때(입식 후 2년 비육)까지는 약 9kg의 배합사료를 급여하고 있다. 조사료는 12개월령부터 20개월령까지는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를 무제한 급여하다가 21개월령부터는 볶짚을 무제한 급여한다.

정 대표는 “사료 급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소들의 사료 섭취량과 축분 상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급여량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음수조·사료조 청소, 우방 바닥관리 등 기본적인 사양관리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사양관리를 통해 평균가보다 낮은 암송아지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육 성적이 높게나와 최근 소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



▲ 정 대표가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통해 사육하고 있는 미경산우.



▲ 세절한 조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정 대표.

황에서도 두당 평균 월 8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소 스트레스 최소화에 주력

이밖에도 정 대표는 소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클래식 음악을 24시간 틀어주고 있으며, 우사 내부 온도가 30℃ 이상이 되면 안개분무기를 3분간 작동시키고 있다. 또 우사 지붕은 개폐식으로 설계해 혹서기에는 오후 5시 이후, 평소에는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 이상 24시간 열어주고 있으며, 환기팬도

선도농가 탐방 ①

365일 작동시키되 여름은 50%, 봄·가을·겨울에는 30%의 세기로 작동시키고 있다.

현재 충주한우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 대표는 “소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생산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통해 지금의 규모에서 2억원 이상의 연간 순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 대표는 우사지붕을 개폐식으로 설계해 환기는 물론, 농장 내부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연한우목장 사양관리 ‘꿀팁’

■ 미경산우 관리

- 8개월령 암송아지 입식 후 비타민제·호흡기 백신 접종.
- 생후 11개월령까지 배합사료는 아침·점심·저녁 각각 1.2kg을, 조사료는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 무제한 급여.
- 12개월령부터 16개월령까지는 하루 동안 4.5kg에서 개월령에 따라 최대 6kg까지, 17개월령부터 24개월령까지는 약 8kg 정도를, 25개월령부터 출하할 때까지는 약 9kg의 배합사료 급여.
- 조사료는 12개월령부터 20개월령까지는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 무제한 급여, 21개월령부터는 볶짚 무제한 급여.

■ 우사 관리

- 소 스트레스 최소화 위해 클래식 음악을 24시간 틀어준다.
- 우사 내부온도가 30℃ 이상 되면 안개분무기 3분간 작동.
- 우사 지붕은 개폐식으로 설계해 혹서기에는 오후 5시 이후, 평소에는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 이상 24시간 열어준다.
- 환기팬은 365일 작동시키되 여름은 50%, 봄·가을·겨울에는 30% 세기로 작동.

※ 농장별로 사양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양관리 ‘꿀팁’은 참고 용도로 활용하세요.

▼ 연한우목장 전경.



선도농가 탐방 ②

“어릴 적 꿈 현실로 만들고 있어요”

개량·사양관리 등 자신만의 체계 확립
후보씨수소 13두·보증씨수소 3두 배출
경산우 매월 2두씩 현대백화점에 납품

◀ 노민섭 녹색목장 대표.

배움에는 끝이 없다

전남 강진군에서 번식우 158두, 육성우 99두, 암소 비육우 59두, 거세우 22두 등 총 한우 338두를 일관사육하고 있는 노민섭 녹색목장 대표는 학창시절부터 한우사육이 꿈이었다.

농장에 있을 때는 물론 모처럼 집을 떠나 여행을 가더라도 온통 한우 생각뿐이라는 노민섭 대표는 “아버지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1978년 현재 위치에서 관리인을 두고 낙농업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젖소를 보며 소를 사육하고자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입학했다”면서 “대학교 졸업, 군대 전역 후 1994년 직접 소를 키우고자 고향인 서울에서 강진군으로 혼자 내려왔다”고 말했다.

강진에 내려와 처음 6개월동안은 젖소 사육을 한 노 대표는 이후 한우사육으로 전환하여 지금의 규모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우에 대한 전문적인 현장지식이 많아 개량 방향 설정은 물론, 송아지를 생산한 첫 해에는 무려 17두가 설사로 폐사했다. 이에 우시장을 다니면서 소보는 안목을 키우고, 수많은 서적을 통해 공부하며 자신의 농장에 직접 접목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수의사에게 수시로 지문을 구하면서 사료급여, 질병 치료 등 자신만의 사양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전남 강진
‘녹색목장’



선도농가 탐방 ②



▲ 노 대표가 조사료를 급여하며 소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 노 대표는 번식우에 벃짚과 수단그라스,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등을 혼합해 급여하고 있다.

암소개량 ‘선발과 도태’가 기본

젖소사육 당시 개량 정도에 따라 유량생산량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보고 이때부터 개량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아 한우를 사육하자마자 암소개량에 매진하고 있는 노 대표는 개량의 기본은 ‘선발과 도태’이며, 이를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기록’이 필수라고 했다.

그는 “암소별로 유전능력의 우수한 정도를 파악하려면 기록관리를 생활화해야 한다”면서 “후대축이 태어나면 부모의 정보, 생시체중, 성장 정도, 질병 등의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추후 수정을 하게 되면 분만 특성 및 성적, 성질, 후대축 도축성적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 기록지를 활용해 저능력 암소라고 판단되는 개체는 과감히 도태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7년 한우육종농가로 선정된 노 대표는 2019년 강진군 최초로 한우 보증씨수소를 배출했으며, 지금까지 총 후보씨수소 13두, 보증씨수소 3두를 생산했다.

경산우 1등급이상 출현율 78%

사양관리 또한 매우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 대표의 노하우를 살펴보면, 송아지가 태어나면 배꼽소독 후 철분제, 비타민제, 미네랄제를 접종하고, 생후 17일령에는 콕시듐 백신을, 6주령에는 호흡기 백신을 접종한다.

질병 예방을 위해서 어미 소 분만 6·4주 전에는 설사 종합 백신을, 5·3주 전에는 호흡기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아울러 봄·가을은 구충제를, 여름에는 아까바네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입불이기 사료는 생후 5일령부터 한주먹씩 급여하기 시작해 하루 섭취량이 700g~950g일 때 이유(약 75일령에서 90일령 사이)시키고 있으며, 이후부터 수송아지는 12개월령까지, 암송아지는 14개월령까지 하루 동안 배합사료 3kg, 조사료는 연맥을 무제한 급여하고 알팔파 펠릿을 드레싱하듯이 급여한다.

거세우의 경우에는 13개월령부터 출하 때까지 TMF사료를 하루 13.5kg을 급여하고 있으며, 번식우는 배합사료는 저녁 5시에만 3kg을, 조사료는 임신감정 후 임신이 확인되면 벃짚과 수단그라스,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등을 혼합해 여름에는 오후 4시, 겨울에는 오후 2시에 약 11kg을 급여한다.

특히 노 대표는 15개월령에 첫 수정을 하고 있지만 생체중이 330kg 이상이고, 자궁경 크기는 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커져야 수정시키고 있다고 했다. 매년 유전능력이 하위 10%인 암소는 과감히 도태

시키고 있는 노 대표는 경산우 비육의 경우 송아지 이유 후부터 10~12개월 동안 TMF사료를 하루 13.5kg 급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51두의 경산우를 출하해 1등급이상 출현율이 78%를 기록했다. 특히 노 대표의 경산우 사양관리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이 입소문이나 2020년부터는 현대백화점에 매월 2두씩 납품하고 있다.

무항생제·HACCP 인증을 비롯해 깨끗한 축산농장에도 선정된 노 대표는 “현재 동물복지농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각종 인증 획득 등 준비된 자세로 한우사육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해 소의 유전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노 대표.



▲ 넓은 방목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번식우.



▲ 원활한 환기를 위해 우사지붕을 개폐식으로 설계했다.



녹색목장 사양관리 ‘꿀팁’

■ 송아지 관리

- 송아지 갓 태어나면 배꼽소독 후 철분제, 비타민제, 미네랄제 접종.
- 생후 17일령 콕시듐 백신, 6주령에는 호흡기 백신 접종.
- 생후 5일령부터 입불이기 사료 한주먹씩 급여. 하루 섭취량 700g~950g일 때 이유(약 75일령에서 90일령 사이).
- 이후부터 수송아지는 12개월령까지, 암송아지는 14개월령까지 배합사료 일 3kg, 조사료 연맥 무제한 급여. 알팔파 펠릿 드레싱하듯이 급여.

■ 번식우 관리

- 배합사료는 저녁 5시에 3kg을, 조사료는 임신감정 후 임신이 확인되면 벃짚, 수단그라스,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등을 혼합해 여름 오후 4시, 겨울 오후 2시에 약 11kg 급여.
- 15개월령에 첫 수정 실시. 다만 생체중 330kg 이상, 자궁경 크기 두 손가락 들어갈 정도 커야 수정.
- 어미 소 분만 6·4주 전에는 설사 종합 백신을, 5·3주 전 호흡기 백신, 봄·가을은 구충제, 여름에는 아까바네 백신 접종.

※ 농장별로 사양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양관리 ‘꿀팁’은 참고 용도로 활용하세요.



임성근 요리연구가 “한식 조리 노하우로 한우 홍보·소비촉진 기여할 것”

다양한 발골·숙성·조리 방법
유튜브 등 통해 적극 홍보

37년간 한식분야 연구한 요리전문가

“지난 5월 한우 명예홍보대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의 한식 조리 경험을 한우 홍보와 어떻게 연계해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했다. 한우자조금과 소통, 협의를 통해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나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본등급(2·3등급) 소비활성화를 위한 레시피를 홍보해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한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식대접 시즌3 우승자이자 한식문화교류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MBN 알토란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해 활동하고 있는 임성근 요리연구가는 37년 동안 한식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요리전문가이다.

지난 8월 7일 서울 금천구 소재 대룡포스트에서 만난 임성근 요리연구가는 “한우 명예홍보대사는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나는 내 분야에서, 내가 가장 잘 하



는 것을 한우와 연계해 한우의 우수성을 최대한 많은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요식업계에서도 한우를 이용한 갈비탕 등 기존의 요리지만 이를 더욱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유튜브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 한우소비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3등급) 기본등급 한우 레시피 알려 소비 촉진 기여

임 요리연구가는 1986년부터 조리를 시작해 그동안 꾸준히 한식 레시피를 개발해왔다. 이에 한우도 발골부터, 숙성 방법, 소비자를 더욱 만족시켜줄 수 있는 조리방법까지 다양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갈비, 우둔, 등심 등 같은 부위를 발골하더라도 발골 방법에 따라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발골하여 요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드라이에이징 등 여러 숙성 기술이 있지만 과거에는 한우고기를 물에 담구거나 야외에서 줄에 걸어 자연상태에서 3일간 숙성시키면 고기의 연도가 매우 부드러워지고, 맛도 매우 뛰어나 이러

한 숙성요리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발골 및 숙성 방법을 알려 소비자가 한우를 더욱 맛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우 갈비탕이나 우거지탕 등을 조리할 때도 이처럼 숙성시킨 저렴한 기본등급 정육부위와 한우의 내장지방을 넣어 깊은 맛을 우려내면 양은 푸짐하되 맛은 매우 뛰어나다”면서 “스테이크도 숙성을 통해 기본등급으로 요리하면 맛은 물론, 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우를 요리하면 2·3등급도 충분히 맛있다”며 “앞으로 단순한 맛 시식행사가 아니라 한우자조금과 함께 유튜브 등을 통해 한우의 생산부터 발골, 조리과정,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소비자들도 집에서 비교적 저렴한 기본등급 한우고기를 이용해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레시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우 소비활성화 및 가격안정 현장 소통 간담회’ 열고 장단기 한우산업 발전방안 모색

올해 도축두수 95만두…2024년 100만두 전망
거세우 기준 산지가격 kg당 1만7천원대 예상



한우자조금은 지난 7월 19·20일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한우소비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장단기 한우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우산업 발전과 위기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한우자조금·전국한우협회에 몸담고 있는 한우지도자 및 한우산업관계자들이 한데 모였다.

이날 간담회 시작에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

선우 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정수 사무관이 나서 각각 한우 수급 동향과 전망 및 한우 수급안정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지선우 연구원은 “2024년 한우 도축두수는 100만두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한우 공급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한우 산지가격은 거세우 기준으로 kg당 1만7천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수 사무관은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우 암소감축 사업은 지금까지 신청받은 물량 총 13만9천마리 중 6월말 기준 6만8천마리가 도축됐고, 2024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비육용 암소의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암소고기 브랜드 육성 및 이력정보를 활용한 미경산우 정보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우산업 발전 위한 여러가지 의견나와

이어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한우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우 사육두수 과잉으로 소 값이 하락하면서 사육두수 제한 등 원활한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우 사육두수 과잉으로 인한 파동이 되풀이되면서 한우농가는 물론 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어 수급조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한우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한우농가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괄적 감축이 아닌 한우산업 지도자 및 사육규모가 큰 지역의 대규모농가들이 솔선수범하여 사육 중인 한우의 10%를 감축시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



켜 사육두수를 조절하자는 의견이다.

축사 개보수 및 농가 경영환경악화 지원대책의 일환인 축사은행제 도입에 대한 정책도 제안됐다. 축사은행제는 일본의 수급조절 및 수취가격 대책 사례들을 분석해 현 세대가 이뤄 놓은 터전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농가가 마음 놓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신규진입농가에게는 한우산업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보자는 내용이다.

또 다른 제도에 관한 의견으로는 등급판정사 실명제 등 등급제와 관련된 개편 필요성과 공급 정책의 방향성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촉진을 위한 의견으로는 법인화를 통한 한우자조금 자회사 설립 후 한우판매 진행, 인터넷 판매 구상 등 기본등급(2등급 이하) 판매 활성화 유통지원 방안 모색에 대해 논의됐다.

한우산업 관계자들과 한우자조금 임원들은 이와 같이 생산, 제도, 소비촉진 등 주요분야에 대해 양일간에 걸쳐 진취적인 토론이 펼쳐졌다.



가을철 환절기 한우 사양관리 요령 ①



장 선 식 농업연구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우리 농업에 많은 시련을 주고 있다. 이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농가에서 충분한 각오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접어들어 가축의 대사기능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양관리에 힘써야 한다.**

이에 가을철 환절기 한우 사양관리 요령에 대해 비육우와 번식우·송아지 등 1편, 2편으로 나눠 게재한다.

■ 비육우 사양관리 - 농후사료 일 10kg 이내 제한 급여



더위가 가시고 비교적 선선해지면 소의 사료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사료를 잘 먹는다고 프로그램보다 많은 양을 급여하면 불가식 체지방이 급격히 증가하여 값비싼 사료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

래한다.

아무리 사료를 잘 먹는다 하더라도 **농후사료 기준 하루 10kg 이내로 제한해 급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농후사료 과식은 등지방두께를 두껍게 하고, 이는 근내지방 침착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뭉친 근내지방을 형성하게 하므로 육량과 육질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선한 사료 급여를 위해서는 한 달 정도 급여할 만큼만 사료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또 물 섭취가 원활해야 순조로운 증체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급수조는 물론, 사료조도 청소를 자주해야 한다. 사료는 되도록 새벽이나 저녁 또는 밤에, 조사료는 주로 저녁에 급여하고 비육후기의 소는 반추기능 유지를 위해 1kg 내외를 급여한다.**

특히 자동사료 급이시설을 이용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고온과 동시에 습기가 많으면 사료저장 사일로나 오거관 안에서 뭉쳐지거나 부패하기 쉬우므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반추위 pH의 급격한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사료를 먼저 섭취한 다음 농후사료를 급여**하고, 사료급여 후 20분가량이 지나면 사료조 밖으로 밀려난 사료를 빗자루로 쓸어줘 사료 허실을 예방한다.

이밖에도 **거세우 급여용으로 시판되는 반추위보호 비타민C나 아미노산 제제는 육질 및 육량 저하를 방지하므로 적당량을 매일 급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은 바로 '한우'

7월 방송에서 만난 한우는 여름철 보양식으로서의 한우 우수성에 대해 알렸다. 특히 초복과 중복을 맞이해 한우의 주 소비층인 주부들이 즐겨보는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한우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렸다. 또 오랜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 해온 동반자, 소의 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우직하게 우리 밥상을 지켜온 한우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단백질 보충엔 한우가 제격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는 초복을 맞아 여름철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단백질이 풍부한 한우가 제격이라고 전했다. 또 한우 보양식을 가정에서 1만원대로 즐길 수 있는 한우 육회 물회(우둔살), 한우 스테이크(보섭살) 레시피 및 요리 팁을 소개하여 초복을 준비하는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렸다.



누구나 손쉽게 따라하는 한우 보양식

KBS 2TV 생생정보에서는 한우 명예홍보대사 임성근 요리연구가의 요리 팁으로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한우 보양식 레시피가 전파를 탔다.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 순환 활성화와 땀이 분출되어 체온이 떨어지는데, 이때 신선한 한우로 만든 영양 만점 '한우 사태 보양탕'과 무더운 날씨에 입맛 돋우는 음식으로 10분이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한우 불고기 냉채' 레시피가 소개됐다.

우보천리, 한우의 가치 재발견

최불암이 진행하는 KBS1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한우와 얹힌 다양한 이야기와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옛 음식과 한우를 활용한 여름 보양식이 소개됐다. 종갓집 음식부터 서민들이 즐겨 먹던 다양한 한우 요리, 한우 외길 인생을 달려온 부자의 사연과 가족을 위해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 낸 다양한 한우 음식 속에서 우리 밥상을 지켜온 한우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1.

‘2023년 학생대상 한우요리체험’ 성료

오는 10월 ‘제6회 한우요리 경연대회’ 개최 예정

한우자조금이 주최하고, 마이샵온샵이 주관한 ‘2023년 학생대상 한우요리체험’이 지난 7월부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학생대상 한우요리체험은 잠재적 한우 소비층인 조리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한우 레시피를 발굴하여 한우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40개교(전국 조리 관련 고등·대학교) 약 1,2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한우요리체험은 한우에 대한 이론교육과 전문강사들의 조리실습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한우의 우수성과 친숙함을 알렸다. 한우요리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한우를 이용한 조리실습의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 한우 조리를 경험할 수 있어 즐거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오는 10월 ‘제6회 한우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및 우수한 인재발굴, 한우 요리 분야 발전을 위해 기획된 한우요리 경연대회는 한우요리체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고등학교와 대학교 총 4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창의적인 한우 요리를 선보임으로써 다양한 레시피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PGA와 함께하는 한우 육포 홍보 프로모션

‘골프 간식은 한우 육포’ 메시지 각인



한우자조금은 최근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주관하는 대회에 한우 선물세트와 육포를 후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한우, 똑심있는 선택> 캠페인의 일환으로 골프를 즐기는 구매력있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우 육포 홍보를 통해 정육 부위 소비촉진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한우자조금은 △아너스K·솔라고CC 한 장상 인비테이셔널 △KPGA 올스타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수선수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시상하고, 선수용 간식으로 한우 육포를 후원했다. 특히 선수들이 대회 중계방송에 한우 육포를 먹는 장면을 노출해 ‘골프 간식은 한우 육포’라는 메시지를 각인시켰다. 한우 육포를 먹고 해맑게 웃는 장면이 노출된 선수가 대회 우승도 차지하면서 취재진에게 “한우 육포를 먹고 힘이 나서 우승했냐?”는 질문을 받는 등 대회장에서 한우 육포에 대한 인기가 뜨거웠다.

2.

3.

카카오와 협업 ‘한우, 일리 있는 선택’ 캠페인 전개

2~3만원대 ‘소프라이즈’ 감탄한우 출시
정육 부위 및 1·2등급 소비 촉진 기대



한우자조금은 한우 실속 소비를 알리는 ‘한우, 일리 있는 선택’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 일환으로 카카오와 협업하여 한우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했다. ‘1·2(일리)등급 한우를 구매하다’와 ‘실속(일리) 있게 구매하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한우, 일리 있는 선택’ 캠페인은 실속 있는 한우 구매를 소비자에게 알려 한우 정육 부위와 1·2등급 한우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우자조금은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온라인 한우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자 카카오와 협업해 한우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한다. 1등급 한우 등심·불고

기·국거리 3종 세트(600g)로 구성된 ‘선물하기’ 상품은 3만원대로, 1·2등급 한우 등심, 불고기, 국거리 등 2종 세트(400g)로 구성된 ‘쇼핑하기’는 2만원대로 실속 있게 구매가 가능하다.

‘소프라이즈’ 감탄한우 기획상품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쇼핑하기에서 소프라이즈를 검색하면 만나 볼 수 있다.

한편,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지난 7월 27일부터 카카오톡 쇼핑하기는 8월부터 출시됐으며, 이번 상품들은 한우농가에서 조성한 자조금이 판매지원금으로 활용된다.

4. '휴가철 맞이 온라인 한우장터' 성황리에 마쳐

5일간 110두 분량...17억7천만원 매출 기록
오픈 첫날 접속자 수 시간당 최대 4천명 방문



한우자조금이 휴가철을 맞아 진행한 '휴가철맞이 온라인 한우장터'가 올해 개최된 온라인 한우장터 가운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등 흥행몰이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 휴가철 맞이 온라인 한우장터 총매출액은 17억7천만원을 달성했으며, 한우 정육량 기준 약 110두 분량에 해당하는 약 31.5톤이 판매됐다. 이는 올해 설에 진행된 '설맞이 온라인 한우장터(명절한우장터)' 때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매출이 증가된 원인으로는 올해부터 시즌제로 진행되는 행사가 벌써 4회차에 접어들면서 인지도 및 신뢰도 상승, 기존 고객 대상 이벤트, 입소문 등을 통해 방문자 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각 지역의 인지도 높은 한우 브랜드 업체들이 행사에 참여한 점도 매출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특히 한우자조금은 휴가철 온라인 한우장터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구매 고객 대상 행사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늘리고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섭외하여 이색적인 한우 요리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홍보도 병행했다.

이 한우요리 콘텐츠는 지난 7월 17일 기준 조회수 153만회를 달성했으며 영상을 통해 약 4만2천여명이 온라인 한우장터에 유입돼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에게 온라인 한우장터를 알렸다.

이 같은 판매·홍보전략에 힘입어 이번 온라인 한우장터는 오픈 첫날부터 접속자 수가 시간당 최대 4천명 이상의 방문을 기록하며, 여름철 한우소비 비수기임에도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판매 동향 분석 결과 소비자 선호도는 구이류는 채끝, 정육류는 불고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오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맞이 온라인 한우장터'로 소비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갈 계획이다. 한우자조금이 진행하는 온라인 한우장터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다면 한우자조금(한우유명한곳)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또는 온라인 한우장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된다.

5. '한우개량 극대화를 통한 전남 한우산업 생존전략' 심포지엄

한우자조금 주최·한우협 광주·전남도지회 주관

한우자조금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가 주관한 '2023년 전남한우산업발전 심포지엄'이 지난 7월 21일 영암축협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우개량 극대화를 통한 전남한우산업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우개량 교육을 비롯해 우수농가 사례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전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이학교 교수는 '한우개량의 한우농가 경제성 및 파급효과' 교육에서 한우개량을 소득향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과 암소개량 기반의 저비용 생산 활용사례 등을 소개하며 "농가 단위 생산비 절감과 소득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한우 생산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우개량을 통한 생산비 및 수익개선 사례발표에서 크로바농장 박태화 대표는 "고급육 생산의 비결은 좋은 유전력, 쾌적한 환경, 좋은 사료 급여 관리가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영산강농장 정종안 대표는 "'한우계획교배' 어플을 활용해 연간 70여두의 암송아지를 생산하고, 이후 강선발을 통해 고능력우는 다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제1차 예산심의 소위원회

내년 사업 암소 감축 사업 중점 재편성키로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의와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가 지난 7월 26일 서울 서초동 소재 한우자조금 사무국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한우생산 및 수급전망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경과 △한우자조금 사업제안 및 건의사항 등이 보고사항으로 발표됐다.

이어 협의사항으로는 내년 한우자조금 사업목표·기본방향(안)으로 △경제 불황 및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 위한 한우소비 홍보 다각화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강화 △한우 균형 소비를 위한 맞춤형 홍보로 한우소비 활성화 △유통경로 및 소비판로 다양화를 통한 한우가격 안정 도모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교육사업 도입 등의 의견이 제시됐으며, 원안 가결됐다.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기본원칙(안)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다만, 한우 수급전망을 고려해 암소 감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재편성키로 했다.

한우고기 유통동향

※ '21년 7월부터 매월 2회 고정 패널(식육포장처리업체 10개소, 대형마트 5개소, 식육판매장 30개소, 일반음식점 20개소)을 대상으로 조사한 분석 자료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량(판매량)

(단위 : kg, %)

구분	2022년 7월	2023년 6월	2023년 7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합계	합계	구이류	정육류	갈비	합계		
식육포장 처리업	895,082	1,006,864	255,002	530,719	251,114	1,036,836	+15.8	+3.0
대형마트	82,992	109,128	28,786	77,466	—	106,252	+28.0	-2.6
식육 판매장	10,852	9,071	2,429	4,533	2,193	9,155	-15.6	+0.9
일반 음식점	3,876	3,878	4,151	708	—	4,859	+25.4	+25.3

* 구이류 : 등심, 안심, 채끝, 특수부위 등

* 정육류 : 우둔, 앞다리, 양지, 사태 등

■ 재고량

(단위 : kg, %)

식육포장 처리업	2022년 7월	2023년 6월	2023년 7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합계	합계	안심	등심	채끝	갈비	정육류	합계		
재고량	203,928	211,414	6,015	18,030	4,453	36,377	117,108	181,983	-10.8	-13.9

*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재고량만 파악한 수치임

■ 유통가격

(단위 : 원/100g)

구분	구이류			정육류			갈비
	안심	등심	채끝	앞다리, 설도, 우둔	양지	목심	
식육포장 처리업	8,040	5,410	6,430	2,360	3,220	1,980	1,720
대형마트	10,448	7,024	—	2,957	5,208	—	—
식육판매장	—	11,400	—	4,440	4,700	—	5,440
일반음식점	—	16,693	—	8,258	—	—	25,000

* 거세 1등급 기준

■ 수입량

(단위 : 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2023년 7월	2023년 누계
냉장	119,379	103,030	7,956	8,906	59,144
냉동	333,433	373,724	31,120	27,061	214,817
합계	452,812	476,753	39,076	35,967	273,961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우 수급시황

중장기 도축 마릿수 증가세 2024년까지 지속 전망

■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3년	
					7월	7월	6월	7월
도축두수(두)		762,746	794,234	871,577	56,154	61,164	68,662	72,484
경매두수(두)		410,849	429,890	533,494	30,176	34,834	41,226	39,505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7,772	21,169	19,018	21,199	19,086	15,558	15,976
	거세	21,241	22,667	20,980	23,397	16,943	18,462	18,625
	비거세	13,386	13,939	12,433	13,008	11,065	8,846	8,110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두)	암소		6,103	6,455	5,559	6,369	5,551	4,425
	송아지	암	3,415	3,629	2,735	3,867	2,898	2,150
		수	4,268	4,550	3,863	4,877	4,266	3,519
소매가격 (1등급/kg)	등심		97,830	102,980	105,530	100,740	103,970	94,420
	양지		60,140	62,980	59,900	62,740	59,110	53,800
	설도		47,330	49,500	45,430	50,170	45,870	42,040

* 전국경락가격 :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 수소(거세 포함) 출하대기 두수

구분	6월		7월
	출하대기 두수	실제출하 두수	출하대기 두수
두수(도축비율)	184,434	28,497(15.5%)	221,536

* 출하대기두수 : 전월 기준 27개월령 이상 수소

* 실제출하두수 : 전월 출하대기두수와 해당월 28개월령 이상 수소 두수의 차이

■ 사육두수 및 농장수

구분	전체 한우마릿수	전체 암소마릿수	가임암소수	전체 한우농장수
두수	3,569,876	2,242,922	1,694,065	85,261

* 가임암소 두수 : 15개월령 이상의 암소

■ 한우 도축 마릿수 전망

(단위 : 천마리, %)

2023년 한우 도축 마릿수는 출하 대기 물량 증가로
전년 대비 9% 증가 전망

◆2023년 도축 마릿수 : 94만5천 마리 전망

• 2023년 2분기 : 21만1천 마리(전년 대비 5.4% 증가)

• 2023년 3분기 이후 : 24만~27만 마리(전년 대비 3~14% 증가)

→ 3분기 거세우 출하 지연 물량 및 암소 도축 증가 예상

※한우 이력제 4월 말 사육 마릿수 기준 거세우 도축 가능 개체수(29개월령 이상)는 전년 대비 35.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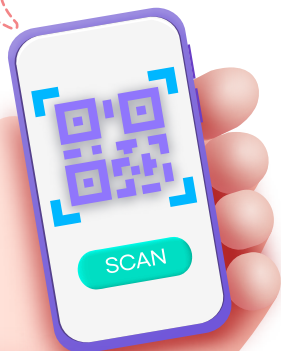
구분		한우 도축 마릿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023년(A)		229.8	211.1	265.7	238.6	945.2
2022년(B)		204.0	200.2	232.9	232.0	869.1
과거 불황기	2011	141.6	166.8	213.9	196.0	718.3
	2012	210.8	177.4	250.8	203.9	842.9
	2013	243.3	211.0	262.1	243.4	959.8
증감률(A/B)		12.6	5.4	14.1	2.8	8.7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카드뉴스로 알아보는 우리 한우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카드뉴스가 게
재돼 있는 한우자조
금 웹진으로 이동합
니다.



축산농장 방역 및 소독 요령



- 축사 세척 및 소독방법
- 소독장비 및 시설관리
- 소독제 성분별 사용요령
- 우천시 축산농장 소독요령
- 소독제 사용 방법
- 농장 방역 체크리스트

유해조류 피해 예방하기



- 유해조류 피해 사례
- 해외 조류 퇴치 사례
- 유해조류 피해 예방법

한우자조금 소식지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소식지 주소를 스마트폰
또는 PC주소창에 입력
hanwoonews.com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 촬영하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우자조금 웹진' 검색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소식지 배너 클릭
www.hanwooboard.or.kr

독자 Review

〈한우자조금〉에 보내주신 독자의 소리

【선도농가 탐방】
손○남 (경남 진주시)

진영진 대신2농장 대표의 위기를 대비하고 경영하는 모습
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550여 두를 사육하고 있으면 사람
들은 심리적으로 과거를 잊고 현재를 즐기게 마련인데 늘 미
래를 대비하는 모습, 태양광 설치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
출하는 등 20년간의 한우사육 노하우를 후배 한우인들과
공유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요즘 소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많은데 이렇게 대비하는 농가가 있어서
우리 한우농가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실어 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
리 한우농가님들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화이팅!!!

【이달의 뉴스】
전○숙 (충남 아산시)

제4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개최가 열
렸네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에 임하
는 장면을 보니 마음이 가고 더 좋은 결
과물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신
규시장 개척을 위한 한우수출지원사업
증액 사업, 한우가치 재규명 및 기타 연
구과제 운영에 힘을 보태는 부분이 눈에
띄네요. 미래개척을 위한 모습이 더없이
좋아보이고 잘되리라 확신합니다. 경쟁력
을 키워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포커스】
차○수 (강원 강릉시)

우리 한우를 너무 사랑하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포커스 기사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요즘 시
대에 맞는 매체를 활용해서 마케팅해야한다는 내용에 너무 공
감했습니다. 한우는 정말 단점이 하나도 없는 음식인걸 모든 이
들이 알지만 소고기에 등급이나 암소·육우 등 종류가 많고 가격
도 너무 다르다보니까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웹진을 읽고나
니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앞으로 한우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더
쉬워져서 한우를 친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 한우 소비가
더 커질거라는 기대감이 드네요. 세계적으로 한우를 널리 알리는
그날까지 한우에 많은 관심 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한우자조금〉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의 리뷰를 남겨 주세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웹진에 접속해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한우 선물세트 / 1명



한우 육포(50g) 10개 / 1명



한우 육포(15g) 10개 /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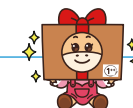
농산물상품권(2만원) / 3명

응모기간 : 2023년 9월 8일(금) 까지
당첨자발표 : 2023년 9월호 소식지에 발표합니다.

※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5만 원 이상 경품에 대해서는 한우자조금 소식지 협력사인 월간한우에서 제세공과금
을 부담하며, 제세공과금 납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

한우 선물세트	한우 육포(15g)	농산물상품권
손○남 (9755)	차○수 (1658)	조○성 (7355)
	민○호 (7972)	곽○일 (4670)
한우 육포(50g)	김○지 (0509)	이○임 (7498)
전○숙 (7172)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오른쪽 큐알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채널 추가'를 눌러주세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한우자조금소식지'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